

학과 신설·모집 확대·정책기조에 AI 관련 학과 정시지원자 16% ↑

AI 학과 정시 지원자수 4896명 대학, 신설·통합으로 정원 확대 수도·지방권, 인문계 증가 흐름

대학 AI 관련학과 정시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이 국내외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자연계열 상위권 수험생의 선호가 이어진 데다 대학들의 학과 신설과 통합, 개편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모집 규모 자체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주요 20개 대학 AI 관련학과 정시 지원자는 4896명으로 전년 4222명 대비 674명 늘어 16.0% 늘었다. 자연계열에서 선발하는 AI 관련학과 지원자수는 전년 대비 17.3% 증가했고 인문계열 선발도 7.7% 늘었다. AI 관련학과 정시 지원자 수는 2024학년도 3069명에서 ▲ 2025학년도 4222명 ▲ 2026학년도 489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모집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AI 관련학과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498명에서 ▲ 2025학년도 545명 ▲ 2026학년도 648명으로 늘었다. 종로학원은 최근 대학들이 AI 관련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를 AI 관련학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확대한 흐름이 지원자 수 증가와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 11개 대학 지원자 수가 3293명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경기·인천권 2개 대학은 353명으로 49.6% 늘었고 지방권 7개 대학도 634명으로 29.7% 증가했다. 전체 규모는 서울권이 가장 크지만 경인권과 지방권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AI 관련학과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 밖으로 확산되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 관련 학과에 입학하고 기뻐하는 수험생 이미지.

는 흐름이다.

서울권 주요 대학의 경쟁률과 지원자 증가도 눈에 띈다. 고려대 인공지능학과는 5.5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36.0% 증가했다. 서강대는 AI 기반자유전공학부 28.6대 1, 인공지능학과 7.2대 1로 2개 학과 평균 23.5대 1을 나타냈고 지원자 수는 21.0% 늘었다. 중앙대 AI 학과는 4.6대 1로 지원자 수가 14.8% 증가했으며 숭실대 AI 소프트웨어학부는 4.1대 1로 23.3% 증가했다.

서울시립대는 인공지능학과 7.2대 1, 첨단인공지능학부 36.0대 1로 2개 학과 평균 11.3대 1을 기록했고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89.6% 증가해 상승폭이 커졌다.

세종대는 AI 융합전자공학과 26.0대 1을 기록했으며 국방AI 융합시스템공학과(해군) 4.6대 1,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 4.2대 1로 3개 학과 평균 4.4대 1을 나타냈다. 세종대 관련 학과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00.0% 증가했다. 숙명여대 인공지능공학부도 7.3대 1로 31.3% 증가했다.

지원자 증가 흐름에는 대학들의 '신

설 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죽전)가 2026학년도 AI 관련 학과를 신설해 5.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하대도 5.8대 1로 전년 대비 지원자 수가 3% 증가했다.

지방권에서도 지원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원자 수는 경북대가 전년 대비 67.2% 증가했고 ▲ 부산대 42.3% ▲ 충남대 64.7% ▲ 경상국립대 11.8% ▲ 제주대 31.4% 증가했다. 지역 거점 국립 대를 중심으로 AI 관련 전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인문계열 선발에서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인문)는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14.1% 증가했고 국민대 AI大数据융합경영학과(인문)도 11% 늘었다. 동국대 컴퓨터AI학부(인문)도 2.1% 증가했다. 반면 한국외대 SOCIAL SCIENCE&AI융합학부는 9.1% 감소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AI 관련학과 지원 증가가 '전면적 상승'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자연)는 10.8 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동국대 컴퓨터AI학부도 4.1대 1이었으나 9.5%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정부의 AI 집중 육성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들의 모집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 대학 간 경쟁 구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향후에는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채용시장 변화가 AI 관련학과 선호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구직자 평균 어학점수 '토익 700~800점'

평균 스펙, 학점 3점대 중후반
구직자 49% "어학점수 보완 필요"

구직자 평균 스펙이 대졸 중심에 학점 3점대 중후반, TOEIC 700~800점대 가주를 이룬 가운데, 이들은 가장 보완이 필요한 스펙으로 '어학 점수'를 꼽았다. 12일 YBM(회장 민선식) 산하 한국TOEIC위원회가 YBM 홈페이지 방문자 4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상반기 구직자 스펙'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가 81.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대학원 이상(10.1%) ▲전문대학교(5.9%)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점은 3.5~3.99 구간이 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4.



/유토이미지

0 이상(24.9%) ▲3.0~3.49 구간(20.8%) 순으로 집계됐다.

TOEIC 성적을 보유한 응답자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800점대와 700점대가 각각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800~845점 보유자가 14.0%로 가장 많았으며, 750~

795점(12.9%)이 뒤를 이었다.

TOEIC Speaking 성적 분포의 경우, Intermediate Mid(IM) 등급이 2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Intermediate High(IH) 20.8% ▲Advanced(AL 이상) 7.7%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스펙을 묻는 질문에는 '어학 점수(49.2%)'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인턴·실무 경험(24.9%)이나 면접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17.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국TOEIC위원회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외국어 역량이 취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 이스라엘-독일, 안보 협력 강화 합동 발표문에 서명
▲ 英, 우크라우 '나이트폴' 미사일 신속 개발 착수
/사진 뉴시스

▲ 젤렌스키 "러우전쟁 1418일…독소전쟁 기간 넘겨"
▲ 중국, 시진핑 中방문 美청소년에 "우호 협력이 양국 민심"

경희사이버대, 'AI 시대 속 변화' 조망

송길영 작가 초청 특별강연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10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과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미래사회에서의 인간과 AI 공존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술 변화가 개인의 일과 학습, 사회 구조에 던지는 질문과 대응을 통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는 입시 지원자와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송 작가는 강연에서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으로 규정했다. 그는 "AI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인프라이며, 쓰지 않는다는 선택이 오히려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해 송 작가는 조직 형태와 개인 역할이 동시에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조직에서 역할을 분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AI를 활용해 여리 기능을 수행하고 직접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0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 및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치 중심 사회에서 성취 중심 사회로의 이동"이라고 표현하며, 직함이나 직급이 가치의 기준이던 시대에서 '무엇을 만들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췄는지'가 개인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 작가는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는 한번의 교육으로 평생을 버티기 어렵다"라며 "교육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갱신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움은 더 이상 진입 조건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며 학습이 직업 이전의 준비 단계가 아니라 직업 수행과 병행되는 과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용인특례시, 동백신봉선·용인선 사업 속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 반영

용인특례시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오는 4월 예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 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 거점을 잇는 총연장 14.7km의 노선이

다. 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연구개발(R&D) 센터, 호텔·컨벤션 시설이 들어설 구성역 인근 플랫폼시티와 연결된다.

용인선 연장은 용인경전철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교중앙역까지 총 6.8km 연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기존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던 안남지구(옛 경찰대 부지) 개발과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변경 사항을 포함해 장래 교통 수요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해당 노선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오늘의 날씨

